<합격수기>

14학번 윤○규

이 합격 수기는 저의 수험생 생활이 어떠하였는가를 적기보다는 수학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공부법을 추천하는가를 위주로 적어보려 합니다. 임용고시 준비생부터 n수생까지 모든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적었지만 이것은 저의 생각이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맹신하여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취사선택하여 취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0. 마음가짐

몇 번 안에 붙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빨리 혹은 늦게 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취미로 수학을 공부할 만큼 수학에 흥미와 자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수에 붙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재수 안에는 붙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수험생활 내내 저를 압박하였습니다.

임용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입니다.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다른 수험생들 또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채점 기준, 출제 경향, 난이도, 경쟁자의 실력이 매년 불규칙한 이 시험에선 언제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임용고시는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니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이 냉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 또한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못한 채 포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에 도전하겠노라 다짐할 때, 비로소 임용고시를 시작해도 좋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1. 계획과 전략

· 예비 임용 준비생

수학 전공 과목에 대해 꼼꼼히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기본서의 모든 문제를 최대한 풀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꼼꼼히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은 해당 과목의 내용이 장기기억에 저장되고 정교화되어 끈끈히 연결되게 합니다. 이는 이후 본격적인 임용 준비 시에 해당 과목에 대한 능력과 자신감으로 연결됩니다.

공부는 습관이며 공부를 하지 않던 사람이 하루 순수 공부 8시간을 채우려하면 반드시 공부의 질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 꼼꼼한 기본서 공부법

대부분 기본서는 정의, 정리, 예, 연습문제 순으로 제시되는데 다음과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정의 : 자신만의 언어로 재진술해본다.
· 정리 : 정의와 마찬가지로 재진술해보며, 증명을 시도해본다. 엄밀한 증명을 해내는 것보다 정말로 이 정리가 성립하는지,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예 : 예시가 나오면 그것의 해설을 읽기 전에 책의 저자가 이 예시를 왜 제시하였는지, 예에 대한 어떤 해설이 쓰여 있을지 꼼꼼하게 예상해본다.

실해석학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수열의 극한 정의를 보고 입실론-N 논법을 'n을 충분히 키워 an을 L에 원하는 만큼 가깝게 만들 수 있다면 an은 L로 수렴한다.'와 같이 말로 재진술해본다.

'수열의 극한은 유일하다.'라는 정리가 나왔다면 이를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극한이 서로 다르다면 수열의 정의에 따라 모순이 발생함을 생각해본다. 만일 생각하지 못하였더라도 증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증명에서 수열의 정의인 입실론-N 논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게 된다.

예제 'an=1/n'이 나왔다면 그 아래 서술되는 내용을 보지 않고 뒷내용을 예상해본다. 1/n은 0으로 수렴하므로, 뒷내용에는 이를 입실론-N 논법으로 증명하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며, 증명을 시도한다.

· 초수생

올해 합격을 목표로 가장 중요한 것을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교육학, 수교론, 전공 과목 모두 임용에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달걀에 비유하곤 합니다. 임용의 출제 범위를 달걀로 생각하면 초수에는 노른자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노른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부하였습니다.

- 전공 : 반드시 기출 문제를 한 번씩은 풀어봐야 합니다. 인터넷에 정현민 전공수학을 검색하면 전공 기출 문제가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과 사용된 정리가 무엇인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용된 정리를 노른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거나 학원의 인강을 완강한 후 그 과목의 기출을 풀어보며 자신이 간과했던 정리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정리해봅니다.

- 교육학 : 다양한 교육학 강사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노른자에 해당합니다. 강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구평회, 전태련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고 권지수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초수에 구평회, 재수에 전태련의 교재를 보았고, 3, 4수에는 권지수의 교재로 공부했습니다.

- 수교론 : 수교론, 수교재 내용을 자신이 읽고 요약한 뒤에 강사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중요한게 무엇이고 그것을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 학습합니다. 정확히 암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추리고 이를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n수생

이 전에 공부한 내용보다 더 넓은 범위를 꼼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수학 전공과목은 다양한 강사의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해의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를 단원별로 모아둔 '유형화' 자료를 푸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유형화 자료를 풀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전공에 대한 탄탄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이 수월하게 풀릴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하며, 유형화가 너무 버거운 분들에게는 특정 강사의 7-8월 문제풀이 정도의 교재를 추천합니다. 둘째,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형화 자료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므로 처음에는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터디 플래너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통해 하루의 공부 시간을 측정하며 전체적인 공부량을 관리하려 하였습니다. 순수 공부 시간이 3시간 미만이 적힐 때도 꽤나 있으며 평균을 따졌을 때 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때에는 공부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습관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잠을 줄여 공부 시간을 늘리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만 늘리는 것은 임용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전공 수학과 수교론, 교육학의 공부 비율

한 해의 공부를 돌아봤을 때 전공 수학 8.5, 교육학, 수교론 합쳐서 1.5의 비율로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교육학, 수교론이 전공 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9월 한 달 동안 전공, 교육학, 수교론을 1:1:1의 비율로 공부하였습니다.

· 노량진, 인터넷 강의

저는 노량진에도 가지 않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격에 있어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할지에 대해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독학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인터넷 강의 정도는 추천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기본서를 독학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이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시절에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많은 부분 소실된 경우에는 더더욱 강의의 효율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구체적인 공부법

· 전공 수학 공부

전공 수학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리나 익숙하지 않은 정리를 끊임없이 외우고 문제에 적용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저는 전공 정리노트를 만들어 과목별로 자주 사용되거나 적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정리를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이 중 다시 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따로 체크하였습니다. 제가 체크한 문제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리가 사용되었지만 풀지 못하였거나, 지나치게 복잡하게 풀었거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 보며 모범답안, 기존의 나의 풀이, 이번의 나의 풀이를 비교하여 시험에서 보다 명료한 풀이로 적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패드가 이러한 과정을 수월하게 해줬으며, 아이패드,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의 구매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 수학교육론 공부

수학교육신론과 같은 기본서를 직접 요약해보고 이후 강사의 문제나 스터디를 통해 자신이 요약한 것에서 빠진 것이나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스터디를 통한 내용의 추가와 수정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요를 짜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 학습 심리학이라는 단원을 예로 들면, 피아제, 브루너, 비고츠키 등의 학자를 떠올리고 학자 별로 주장한 내용이나 이론을 떠올려보는 식입니다.

· 교육학 공부

교육학 교재를 한 번 밑줄 그으며 읽은 후, 타이핑하여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방대한 내용이 담긴 교재에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요약할 수 있어, 정리 이후 회독하며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학 문제는 논술을 해야 하는데, 타이핑을 하면서 자연스레 교육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등이 익숙해진 것이 논술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육학 또한 수학교육론과 마찬가지로 개요를 짜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을 예로 들면, 교육과정 개발절차, 교육과정 개발모형, 교육과정 유형 등을 떠올리고 각각의 세부내용을 떠올려보는 식입니다.